인생 경험 묻어난 '생활 연기' 독보적

한국 배우 최초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 윤여정은 누구

데뷔 55년차…영화 '화녀'로 연기자 길
직설적 화법·유머 색다른 예능 매력
'미나리' 순자 캐릭터로 전세계 열광

젊은 시절 윤여정

최근 tvN '윤스테이'에서 직설적인 화법과 특유의 유머감각으로 사랑받고 있는 배우 윤여정(74)이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라 화제다.

올해로 데뷔 55년 차인 윤 씨는 대학 시절 방송국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연기 권유를 받았고, 1966년 TBC 탤런트 공채에 합격해 연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영화 데뷔작이자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늘 꼽히는 작품은 1971년 개봉한 김기영 감독의 '화녀'다. '화녀'에서 주인집 남자를 유혹하는 가정부 역할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연기를 선보인 윤 씨는 대종상과 청룡영화상을 거머쥐었고 충무로를 이끌어갈 얼굴로 자리 잡았다.

배우로서 앞길이 창창하던 시절, 그녀는 1975년 가수 조영남과 결혼하면서 미국으로 떠났다. 결혼 후 정착한 미국에서 13년간 살다 이혼 후 귀국한 윤 씨는 홀로 두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 연예계에 복귀했다. 이후 역할을 가리지 않고 억척스럽게 연기했다. 대중에게서 멀어진 시간 동안 곤궁했고 외로웠다고 고백한 그는 스스로를 '생계형 배우'라고 지칭했다.

그래도 미국에서의 힘겨웠던 시간은 그에게 자양분이 됐다. 그는 직접 겪은 삶의 희로애락을 다양한 연기의 각 지점에서 절묘하게 풀어냈다. 인생 경험이 묻어 난 그의 생활 연기는 깊이가 남다르다는 평을 받았다.

'바람난 가족'(2003)에서는 투병 중인 남편을 두고 공개적으로 불륜을 선언하는 시어머니 역으로 그간의 공백기가 무색하게 존재감을 드러냈으며, 이후 임상수 감독의 '그때 그 사람들'(2005), '돈의 맛'(2012), '자유의 언덕'(2014), '나의 절친 악당들'(2015) 등 수많은 영화로 관객과 만났다.

윤 씨는 생계를 위해 가리지 않고 연기했던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며 "하고 싶은 사람과 하고 싶은 작품을 골라 하는 것이 60대 이후 자신이 누리는 사치"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독립영화 '찬실이는 복도 많지'에 개런티를 받지 않고 출연했고, '미나리'도 "독립영화라 고생할 게 뻔해 하기 싫었다"면서도 "정이삭 감독과는 다시 한번 하고 싶다"며 애정과 신뢰를 보였다.

그녀는 영화 뿐아니라 TV 드라마에도 해를 거르지 않고 출연했다. 1980년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사랑과 야망' 부터, 가부장적 가치관이 변하는 과정을 담은 '사랑이 뭐길래', '목욕탕집 남자들' 등에 출연했고, '거짓말',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디어 마이 프렌즈' 등에 출연했다. 최근에는 '윤식당', '윤스테이' 등 예능프로그램까지 섭렵해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다.

윤 씨는 또 영화 '미나리'에 앞서 2015년 배두나가 주연한 넷플릭스의 미국 드라마 '센스8'과 현재 촬영 중인 애플TV플러스의 드라마 '파친코'까지 해외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한국 이민자 가족의 고단한 삶 잔잔하게 그려

'미나리' 어떤 영화인가

'한 가족에 관한 마음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영화'.

'미나리'는 한마디로 '마음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영화다. 보편적인 인간의 삶에 한국 이민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담아냈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마음의 언어'라는 말에는 사실을 뛰어넘는 진심과 진정성이 전제돼 있다.

15일 '미나리'가 작품상을 비롯해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영화는 미국 땅에 정착한 한국 이민자의 고단한 삶을 잔잔하게 보여준다. 정이삭 감독은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수상 당시 이렇게 말했다. "'미나리'는 한 가족에 관한 이야기고, 그 가족은 그들만의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미국의 언어나 외국어보다 심오하다. 그것은 마음의 언어다. 나도 그것을 배우고 물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정 감독의 말은 지난해 아카데미영화상에서 '기생충'으로 작품상 등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1인치 자막의 장벽은 이미 많이 허물어져 있었다"는 어록을 떠올리게 한다. 그 '1인치 자막의 장벽'은 분명 '외국어' 논란을 의미하지만, 마음과 진심이 합치된 공감은 여타의 논란을 무화시킨다.

'미나리'는 분명 한국 영화는 아니지만, 한국 영화이기도 하다. A24가 투자를 맡았으며 브래드 피트가 설립한 영화 제작사 플랜 B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미국 영화다. 외형은 그렇다. 그러나 작품은 197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떠난 한국인의 삶을 그렸다.

영화는 정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가 모티브가 됐다. 미국으로 건너온 한국 이민자들의 '뿌리내리지 못한 삶'은 영화 전편에 쓸쓸한 정서를 드리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어느 곳에도 뿌리를 내리는 '미나리'는 한국인들의 은근한 삶의 근기를 상징한다.

캘리포니아에서 병아리 감별사 일을 하던 제이컵 가족이 아칸소로 이주한다. 그러나 아내 모니카는 몸이 아픈 아들 데이비드와 딸 앤의 학교문제로 도시에 살기 원한다. 별수없이 애들을 돌보기 위해 모니카 친정어머니(윤여정)가 한국에서 들어오지만 얼마 후 이들 가족은 큰 위기에 직면한다. 아들의 심장 검사를 위해 도시로 잠시 나갔던 날, 어머니는 쓰레기를 태우다가 농작물을 저장해둔 창고까지 태우고 만다. 휩싸인 불길을 보고 제이컵과 모니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든다.

이튿날, 폐허와 같은 상황속에서도 카메라는 바람에 흔들리는 미나리를 비춘다. "미나리는 아무데서나 자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뽑아먹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마지막 장면에서 윤여정이 손자에게 했던 말이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하다.

삶의 터전을 옮긴 이민자들의 모습은 비단 한국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아메리칸 드림을 찾기 위해 미국으로 흘러들었던 다양한 민족과 인종들의 이야기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꾸는 꿈이기도 하다.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이야기는 그렇게 한 가족의 역사와 기억을 매개로 세계인들에게 '바로 우리 이야기'라는 울림을 주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신춘문예 작품집 발간…광주일보 당선작 '등고선' 등 실려

'2021신춘문예당선소설집'
'2021신춘문예당선 동화동시집'

광주일보 2021 신춘문예 소설 당선작 '등고선'(김정숙)과 동화 당선작 '8구역 배추자 여사'(김효진)가 실린 올해의 신춘문예 당선작품집이 잇따라 출간됐다. 한국소설가협회가 발간한 '2021신춘문예당선소설집'과 정은 출판사에서 펴낸 '2021신춘문예당선 동화동시집'이 그것.

문청들의 열정과 패기가 담긴 이번 작품집에는 저마다 시각으로 풀어낸 흥미로운 작품들이 담겨 있다. 자유로운 상상력과 자신만의 문법으로 형상화한 작품은 신인 작가들의 내일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먼저 '2021신춘문예당선소설집'에는 24편의 다양하면서도 특색있는 삶의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새로운 발상과 독특한 화법, 삶을 모색하거나 빚어내는 방식에는 침체된 문학에 새로운 감성과 활기를 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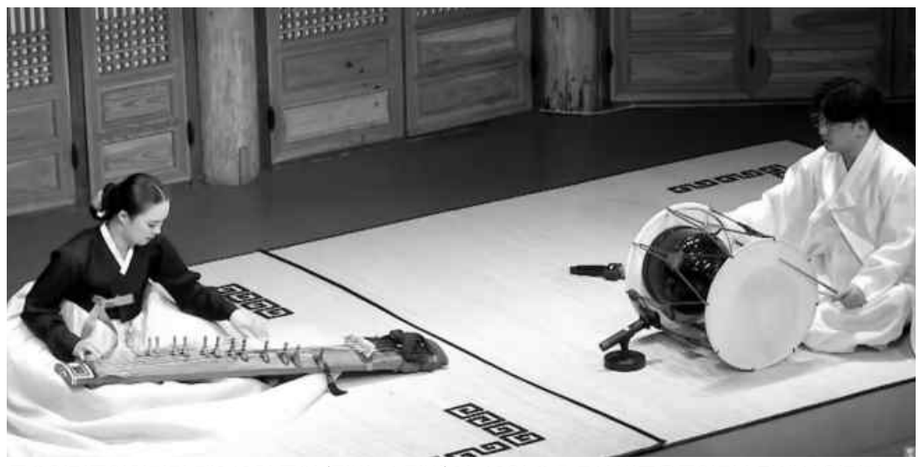
광주일보 당선작 '등고선'은 심사평에서 "예술과 노동을 등고에 놓고 예술가로서의 삶을 반추하는 작품이다. 섣부른 낭만이나 예술적 허영에 빠지지 않은 점도 작가의 미덕이라 할 만하다"라는 평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2020신춘문예당선 동화동시집'은 19명의 신인들의 작품을 수록했다. 이번 당선작들은 각기 디지털과 아날로그적 경계 선상에서 펼쳐지는 AI, 신종 전염 바이러스, 도시의 생태 등을 다뤘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전적 틀을 깨고 새로운 발상으로 세상을 보고자하는 열정이 다양한 소재와 작품 경향에 반영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주일보 당선작 '8구역 배추자 여사'는 자신과 주변을 밝은 에너지로 채워가는 배추자 여사의 캐릭터를 자유로운 상상으로 풀어낸다는 점이 이채롭다.

이 동화는 심사평에서 "자칫 침울하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을 거침없는 대화와 간결한 문체로 분위기를 전환해 재미를 더해주는 작품"이라는 평를 받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목요열린국악한마당 제646회 공연 '적벽, 소적벽'이 18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열린다.

목요열린국악한마당 장혜윤 초청 '적벽, 소적벽' 공연

18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광주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은 오는 18일 오후 7시 목요열린국악한마당 제646회 공연에 장혜윤을 초청, '적벽, 소적벽'을 개최한다.

공연은 가야금병창 단가 '편시춘'으로 문을 연다. 이어 '수궁가'와 '적벽가'를 선보인다.

'수궁가' 중 '토끼화상 그리는 대목' 부터 '관대장자' 대목을 들려주는데, '수궁'과 '육지'라는 반복구조 속에서 그 진중하고 깊은 이면을 표현하기 어려운 '수궁가'는 '소적벽가'라고도 한다.

'적벽가' 중에서는 조좌룡이 오나라 장수 서성과 정봉을 무찌르는 내용의 소리 대목인 '조좌룡 활쏘는 대목'을 들려준다.

장혜윤은 전남대 국악학과와 조선대 교육대학원 석사를 졸업했으며, 제43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차하, 제14회 대한민국 가야금병창 대제전 국회부의장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진도국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으로 예술인재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다양한 공연을 통해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관람은 거리두기 좌석제 운영에 따라 선착순 50여명만 입장할 수 있다. 매회 공연은 유튜브 채널 '빛고을국악전수관'을 통해 서비스 된다. 무료관람. 문의 062-350-455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첨단 돌솥 감자탕 산포점
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남로 96
☎ 061)332-6108

행정심판전문행정사 행정법인 맥 행정법률사무소
북구 유동 41-6번지
행정사 김유승
☎ 062)523-5885, 010-5665-0150

평강안마지압원
북구 임동 191-13 서림초등학교 후문 앞
만성피로 및 각종 통증관리
근육통, 3차신경통, 요통, 관절염, 좌골신경통
국가공인안마센터
☎ 062)527-6664, 010-2645-6664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대신청소전문기업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54, 2층
학교청소, 공장청소, 업소청소, 외벽청소
현장청소, 준공청소, 입주청소, 거주청소
이사청소, 해충방제
☎ 062)526-1133, 010-6522-1524

새희망 직업소개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54, 2층
남·여 인력 항시모집
☎ 062)531-5511, 010-6522-1524

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법무사 이영석사무소
동구 밤실로 16-1(지산동)
부동산등기, 매매설정, 상속, 증여 등 상업등기
회사설립, 임원변경등 형사, 고소장, 항고장 신청
각종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 입찰 기타법률상담
☎ 062)226-7220, 010-3666-7220

In.ssalon_sia
동구 경양로 234 그랜드센트럴 119동 807호
휴무 : 매주 월요일
영업시간 AM. 10:00 ~ PM. 8:00
☎ 062)233-1202

석 당 화 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 스 제 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굴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갈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보 광 세 탁 소
동구 지산1동 동명로73-2(구.농장다리앞)
각종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의류
수선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

보물섬회 활어회 직판장
동구 산수동 556-58 (광주은행 앞)
프랜차이즈, 홀손님 환영
포장전문, 각종회 산지직송 산수직영점
☎ 062)234-8882, 010-3621-0123

초 대 화 랑
동구 궁동54-2번지(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고 전 방
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천변우로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 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신 신 예 술 의 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국수나무 광주신안점
북구 서암대로95 (신안교앞 고은@상가1층)
각종 국수와 돈까스, 각종 식사류
☎ 062)531-0331, 010-5511-0331

드림케어솔루션
동구 금남로161-11 금오빌딩 3층
의료기기 도·소매
온·냉 알칼리 이온수기
5분도쌀(황미쌀) 즉석 도정기
☎ 010-3118-5679

박 당 화 랑
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